



# 서중신문

2015-5호

- 발 행 인 : 교장 교수영
- 지도교사 : 윤인아
- 발 행 처 : 변산서중학교
- 발 행 일 : 2015. 7. 20

579-854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 학교장 발간사



올 봄에는 비가 적어서 밭농사를 하는 우리 고장에서는 마늘과 양파가 적게 생산되었고, 여름에 들어서면서 메르스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기침, 고열을 대비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행사를 연기하였습니다.

힘들게 지내온 1학기 동안 학업에 정진하여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루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을 실천하려는 변산서중 학생들의 그 간의 활동에 치하를 드립니다.

1학기동안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아울러 학부모 상담주간, 금연 실천학교, 어울림학교, 내고장 체험활동, 독서-토론-논술 능력배양, 해외영어캠프 선정, 화상영어교실, UCC제작활동, 토요 난타 교실, 도예체험, 무주환경연수원 체험활동, 독후감 발표대회, 다문화 체험활동, 7560+ 운동 선도학교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학기 활동들을 모아 학교신문에 발간하려 합니다. 모든 변산서중 교육 가족들의 활동 내용을 엮어서 활동의 장을 만드려 합니다. 1학기 동안 활동한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2학기에는 더 발전된 된 학교신문을 기대합니다.

## Contents

### 2 + 학교소식

- 2015학년도 입학식
- 장학증서 수여식
- 학생회 임원 임명식
- 2015 교육과정 설명회
- 다문화 이해교육
- 소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
- 장한아버지 시상
- 어울림학교 NEWS

### 4 + 체험속으로

- 과학의 달
- 내 고장 체험활동

### 5 + 진로교육

- 두드림학교 미술치료 집단 심리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프로그램 ‘로봇공학자체험’
-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 6 + 우리들의 활동

- 가온누리시네마스쿨
- 도예체험활동
- 건강체력증진 7560+
- 네팔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
- K-water 물드림 캠프
- 야영수련활동
- ‘우리는 하나!!’
- 춘계현장체험학습
- 학교를 빛낸 학생들
- 감사인사
- 부안군 육상경기대회

### 8 + 우리들의 숨씨

## 토닥토닥 Free Hugs Campaign “소중한 당신을 따뜻하게”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학교 정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과 학생회, 또래상담반 학생들이 참여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프리허그와 아침식사대용 빵과 음료수를 전달하였다.

‘소중한 당신을 따뜻하게,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토닥토닥 FREE HUG’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만들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처음에는 쑥스러워 주춤하던 학생들도 웃으며 동참하였고, 어색해하던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승과 제자, 학생과 학생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김두용 교감선생님은 “학교사회에서 사제 간의 따뜻한 소통의 경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소통, 배려, 감동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허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제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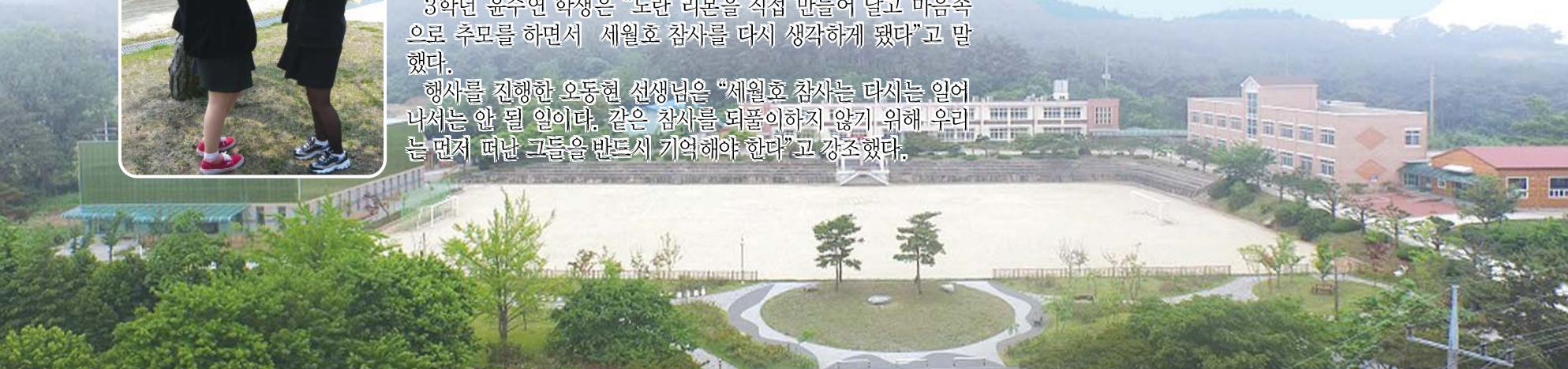


## ‘노란리본 달며 세월호 아픔 함께 나누어요.’

지난 4월 한 달간을 세월호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노란 리본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노란 리본 달기 및 희망메시지 게시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3학년 윤수연 학생은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어 달고 마음속으로 추모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진행한 오동현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떠난 그들을 만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학년도 입학식

3월 2일(월) 김도연 외 29명의 신입생들이 중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입학식은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있었으며 교장선생님의 축하와 환영, 그리고 당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 장학증서 수여식



3월 2일(월) 본교 체육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1회동창회장학금 3명, 3회동창회장학금 3명, 홈마트 재효장학금 10명의 학생이 받았습니다.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재

능계발과 학습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학교 선배 졸업생의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꿈을 키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 동량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 학생회 임원 임명식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 25일(수)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2015학년도 학생회 임원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2015학년도 학생회장 장원일(3-2), 부회장 김준혁(3-1), 부회장 김주희(2-1)학생을 비롯하여 5개 학급의 실장, 부실장 등 10명이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학급	실장	부실장
1-1	신승우	박선희
1-2	박유빈	최재현
2-1	김소영	이우전
3-1	최승현	최정원
3-2	정가을	송병준

## 2015 교육과정 설명회



과외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문화 이해교육

지난 3월 2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ebs 다문화 '사랑 - 휘트니가 누구야?'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영상으로 시청함으로써 같은 중학생 입장에서 깊은 공감과 존중성을 길러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소방교육 '안전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지난 3월 30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 소화기·소화전·화재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사는 “최근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고수영 교장은 “학교의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4월 15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폭행,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예방을 위해 부산경찰서 손모범 경사님께서 본 교를 방문하시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손모범 경사님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다양한 사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본교 강당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교 폭력의 실태 및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예방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여가며 설명해주셔서 좋았다”며 “앞으로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부장 정형 선생님은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며 “학생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

4월 25일 학부모를 초청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둠별 수업,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 활용 수업 등이 공개수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고수영 교장은 "수업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꿈, 열정, 행복을 만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 장한아버지 시상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5월 8일 교장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장한 아버지를 선발해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 선정 기준을 홍보하고, 담임교사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발했다. 이번 장한 아버지상은 평소 자녀를 성실한 자세와 인내심을 갖고 훈육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장문석(3-2 장원일 조부)님이 선정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본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자 매년 수여하고 있다.



## 어울림학교 NEWS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실길 걷기

2015 학년도 어울림학교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실길 걷기」 등산 행사를 지난 지난 5월 9일 실시했다. 참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의 작은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변산 마실길의 맑은 공기와 푸르른 숲 속에서 선생님과 제자, 부모와 자녀, 또한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이야기 시간이 부족하여 다소 어색했던 부자 사이가 이리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이와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뜻 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에 한 학생은 "선생님처럼 더욱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았고 마실길을 걸은 후 먹는 점심밥은 정말 꿀맛 같았다."고 말했다.

인솔교사 정형선생님은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땀 흘리고 얘기 나누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 교사 독서토론 동아리

지난 5월 27일 소통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격포초, 변산초, 변산서중 3개 학교 교사들은 교사독서토론 동아리 운영과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모든 교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독서·토론 동아리는 매달 선정된 도서를 읽고 4째주 수요일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고수영 교장은 "독서·토론수업 동아리 활동으로 3개학교 교사들간의 소통이 활발이 이뤄지고 학생들의 독서토론 지도에 도움이 적극 활동 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다.



### 학부모 교육 관계의 기술 '감정 코칭'

지난 6월 4일부터 학생과 학부모 관계의 기술 '감정 코칭'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 격포초, 변산초, 변산서중 희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 김완순(군산 부부·가족 상담 연구소)을 초빙해 1회 '애착의 중요성과 감정코칭 필요성', 2회 '아동 청소년의 특성' 3회 '부모의 양육자 유형' 4회 '다가가는 대화'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8월 13일 1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효과적인 자녀 양육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추진한 학생인권부장 교사 정형은 "현재 학부모와 자녀의 최대 관심사가 부모 자녀 간 원활한 관계 형성과 진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참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교육을 지속해서 추진 하겠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과학의 달 ‘다양한 체험으로 호기심 up ↑ ↑’

지난 4월 한 달간을 교내 과학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전교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과학의 생활화를 통해 과학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

과학실에서 6개의 체험부스만들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과학 시화전, 과학 문자 디자인전, 과학독후감, 달걀 낙하 구조물 경진대회, 과학골든벨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체험부스에서 과학의 실생활 활용된 예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했다.

과학의 달 행사를 진행한 교사 김덕중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학의 소중함을 깨닫고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내 고장 체험활동

### 고사포 갯벌체험

청소년들의 갯벌에 대한 관심과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교실을 5월 19일 1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갯벌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바다생물을 관찰, 해안지형을 탐사하여 갯벌 생태교육을 통해 갯벌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을 진행한 김덕중 선생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오감으로 갯벌체험 소중함을 체득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숲 생태 환경체험활동 ‘숲을 아끼고 보호해요.’

지난 5월 30일 토요일 1, 2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산 자연휴양림과 대아수목원을 찾아 숲 생태 환경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나무와 꽃, 곤충과 새를 관찰하고 숲속놀이를 하며 숲과 하나되는 시간이 됐으며 식물의 특징과 이름에 담겨진 의미, 자연물을 이용한 리스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숲 사랑의 마음을 키웠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대아수목원 숲 해설가는 “학생들이 숲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 눈에 보여 신나게 활동할 수 있었고 숲의 생태에 관한 이해력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아서 깜짝 놀랐다”며 생태체험학습을 진행한 소감을 전했다.

고수영 교장은 “어린 시절에 숲속에서 놀고 체험한 경험은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기에 지속적인 숲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 ‘내 고장 이야기’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지난 5월 27일 지도교사 2명과 1,2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석정문화관, 매창공원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문학작품과 시낭송체험, 청림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하여 별, 행성, 위성, 성단등을 관측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천체이론,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조작법을 배우고 난 뒤 천체망원경을 직접 작동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태양의 흑점 및 홍염은 물론 달 · 행성 · 별 · 성운 등을 직접 관측하였다.

지도교사 김덕중 선생님은 “행사를 통해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내 고장의 문화, 산업, 지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동시에 별자리에 대한 강의도 듣고 직접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며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모터보트체험 ‘더운 여름 지금부터 날려요~’

7월 2일 오후 격포항에서 격포 모터보트연합회 지원으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터보트 체험을 하였다.

체험에 앞서 보트위에서의 안전교육과 물에 빠졌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 지도를 받고 간단한 몸풀기를 마친 후 채석강 모터보트 선착장에서 사자바위까지 모터보트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찍이 여름을 맞이 하였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보트가 물을 가르고 빠른 속도로 달려서 물에 다 젖었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에 스트레스도 확 풀린 것 같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두 드림학교 미술치료 집단 심리 프로그램 운영 ‘나의 희망을 부탁해!!!’

지난 6월 13일 시작으로  
5회기 상담프로그램으로  
미술실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  
단 심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문지, 크라  
프트지, 마분지 등을 이  
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6월 27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골심지  
를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긁어보면서 감정분출이 힘든 학생들  
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집단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작업 및 상담을 동시에 체험  
함으로써,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력 및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고수영 교장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했던 학생들이, 이번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통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은 “집단상담에 참여하기 전에는 따  
분한 상담일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참여하고 보니 미술작품  
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협동작업도 해볼 수 있어서 이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고 마음을 표현해서 후련하다.”고 말했다.



## 진로체험프로그램 ‘로봇공학자체험’

6월 20일 토요일 진로동아  
리 두드림 회원 15명 대상으  
로 실제 체험을 통한 자기발견  
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 하  
고자 재미있는 과학과 흥미로  
운 공학을 소개하는 ‘로봇 공  
학자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멘토 소개와 조 편성을 시작으로 ‘나의 대해 알아보기 및 마인드 교육’,  
‘로봇공학자’ 실습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움직이는 로봇 안에 활용된  
과학적 원리와 공학적 지식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진행하신 포인트 아카데미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체험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과학과 공학은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목적이다”며, “이러한 관심과  
흥미를 통해 꿈나무들이 한국의 과학과 공학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  
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학부모용 오디오 콘텐츠 [진로레시피] 청취 안내

학부모들에게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  
기 위해 주 3회 정기적으로 팟빵을 통하여 학부모용 오디오 콘텐츠  
「진로레시피」가 방송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방송기간 : 2015.05.11.~12.31.(매주 월, 수, 금 주 3회)

▶청취방법 : PC - 팟빵(<http://www.podbbang.com>) → 「진로레시피」 검색  
스마트폰 - 팟빵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맘에 쏙 진로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 [1]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중학교는 자신이 좋아하  
고, 잘하며, 가치 있게 여  
기는 것을 탐색해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자  
녀가 진로와 직업의 의미  
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일의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진로체험은 자녀가 다양한 일의 세계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도  
록 함으로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  
회입니다. 아일랜드나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또는 갭이어(Gap Year)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중학교 과정 중 1학기  
동안 토론, 실습,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들과 체험 활동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로체험을  
하거나 진로캠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이  
러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에서 진행한 진로체험 활동에 대해 자녀와

#### 글 쓰는 순서

1.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2.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설계
3. 진로체험과 학부모의 역할
4. 진로체험 길라잡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  
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체험처 정보나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또는 ‘커리어넷’ 사이트를 활용하시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설계

중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성향이나 특성, 장래 희망 등에  
대한 막연함을 조금씩 극복하고 동시에 직업이나 일의 영역에 대해  
서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  
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자아나 일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수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로에 접근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미래를 추구하며 자  
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  
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희망하는 직업이나 관  
련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자신의 성향이나 능력,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인식의 폭  
을 넓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 진로설계에 필  
요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 내용을 ‘에듀팟’이나 ‘커리어 플래너’를 활  
용하여 데이터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내용을 기록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점과 보완할 점을 보다 명료하  
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커리어 플래너’는 아이의 체  
험활동 기록을 학부모 및 선생님이 공유할 수 있어 아이의 진로상  
담 및 진로설계 지도 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온누리시네마스쿨

### '나도 영화감독!!!'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온누리 학생들 12명의 학생들이 지난 4월 25을 시작으로 UCC 제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상반기 기초과정(UCC)과 하반기 심화과정(단편영화)으로 진행하며 UCC과정에서는 디카 촬영교육과 촬영실습, 편집교육, 사진으로 영상만들기, 영상 촬영, UCC만들기, 단편영화 과정에서는 영화의 기본개념 이해와 단편영화 감상과 토론, 연출과 영상언어 익히기, 시나리오 작법, 촬영, 편집, 영화감독 특강, 시나리오 작성 및 선정, 콘티작성 및 스톱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시네마 스쿨을 담당한 교사 오동현은 “영화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지역과 이웃,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무료로 진행이 되는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사진과 영상, 시나리오 작법과 영화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건강체력증진 7560+

### '건강한 학교, 튼튼한 학생'



4월 20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선정한 '7560+ 운동선도' 학교에 지정되어 매일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할 수 있도록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7560+ 운동을 실시했다.

7560+ 운동은 댄스, 탁구, 농구, 건강증진 4개의 종목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은 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고수영 교장은 “운동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을 위해 7560+ 운동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기초체력 향상, 여가생활의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수영 교장은 “운동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을 위해 7560+ 운동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기초체력 향상, 여가생활의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팔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

지난 6월1일부터 5일까지 네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자발적인 학생회 회의를 통해 네팔 난민 친구들을 돕자는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전액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하였다.



## 도예체험활동

### '옛' 사람들의 지혜 대단해요~!!'



5월 18일(월)에 1학년을 대상으로 백련초등학교로 도예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향토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직접 흙을 만져보고 책으로만 접해왔던 탑을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어봄으로서 자연 친화력을 기르고 함께 더

불어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됐다. 도예체험학습은 도예 선생님과 함께 흙 다루는 방법, 도자기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직접 흙으로 탑의 모양과 형태를 성형하였다.

도예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옛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릇도 만들어서 엄마가 쳐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K-water 물드림 캠프

### '인체의 건강한 물'

4월 23일 K-water 전북지역본부 부안정수장이 마련한 '물드림 캠프'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인체의 건강한 물'이라는 주제로 영상교육과 정수장 시설견학, 간이정수기, 친환경 수차 만들기인 물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체험교실은 실험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차 만들기 활동과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배우고, 보와 어도 등 생태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보면서 지시약을 이용하여 물의 오염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물을 남길 수 있도록 물을 아끼고 환경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 야영수련활동 “너 와 나 그리고 자연”



5월 21, 22일 1박 2일간 전교생이 무주에 위치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을 다녀왔다.

이번 야영수련활동은 학생들에게 체험적인 야영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환경은 살아있는 생명·문화이고, 삶의 활력을 주는 녹색 터전으로 친근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혜로움을 깨우치며 극기심과 인내심을 배양하고, 봉사 협동하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줌으로써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 기후 변화특강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관 견학을 시작으로 인절미 만들기 체험학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며 강사 및 안전요원의 진행에 따라 안전교육 후 'I can do it'을 외치며 자연탐사 오리엔티어링 숲 모험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오리엔티어링 활동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학교생활에 활력소가 될 것 같다”라고 웃으며 소감을 밝혔다.

## 전통놀이 활용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 ‘우리는 하나!!’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에 다문화학생 1명과 3명의 일반학생을 구성하여 4월 23일 ~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현장 적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째 날에는 우리 전통놀이에 담긴 생활 과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윷놀이, 실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였으며 둘째 날은 바람개비와 연을 직접 만들어 날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다문화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은 자연놀이, 기예놀이, 풍속·절기놀이, 두뇌놀이, 체육놀이, 음악놀이 등 6개 영역 30종의 전통놀이를 활용해 대인관계와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촌 청소년들의 경우 전통놀이 유형을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대인관계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환경지원청 관계자는 “다문화자녀들의 대인관계와 자아정체성 발달에는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의 관심,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과 자아 정체성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춘계현장체험학습

지난 5월 1일 내 고장의 자연환경을 알고 그 소중함을 갖고자 변산면에 위치한 월명암으로 전교생이 함께 춘계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월명암」의 역사와 그 창건에 얽힌 설화를 알고, 내 고장의 중요한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하며 등산 후, 남여치에 모여 맛있는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랬다.

식사를 마친 후, 각 반별로 추억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월명암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산에 오른다고 했을 때 힘들고 왜 하나 싶었는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니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한 공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오랜만에 수군돌리기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 ☆ 학교를 빛낸 변산서중 학생들 축하합니다. ☆

학년	이름 (수상대표명)	수상명	등급 (위)
2	김한샘	표창장	
3	송병준	표창장	
3	장원일	표창장	
2	김혜인	제42회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포환던지기부문)	3위
3	박소진	제42회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멀리뛰기부문)	3위
3	황태희	제42회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1500m 부문)	3위
3	김우나	제42회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800m 부문)	2위
3	송재홍	제42회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포환던지기부문)	1위
3	양설아	전라북도 도민체전 태권도(겨루기부문)	2위

## 감사합니다

1학기 동안 기탁된 장학금 420만원을 교내 27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모교사랑과 학교발전에 관심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부안군 육상경기대회 “변산서중 화이팅!!”

제 42 회 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가 지난 6월 4일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에서 선발된 100m 3학년 이병환 2학년 곽연미, 200m 3학년 강민재, 1학년 박유빈, 800m 3학년 김건호, 3학년 김우나, 1500m 2학년 김지원 3학년 황태희, 포환던지기 3학년 송재홍 2학년 김혜인, 멀리뛰기 1학년 최대웅 3학년 박소진 학생들이 출전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200m 3학년 강민재 학생은 3위를 하였으며, 1500m 황태희와 멀리뛰기 박소진 학생은 3위를 차지했다.포환던지기에 출전한 송재홍 학생은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회에 출전한 한 학생은 “200m에 출전했는데 순위에 들지 못해 아쉽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 장애인교육감상문

## 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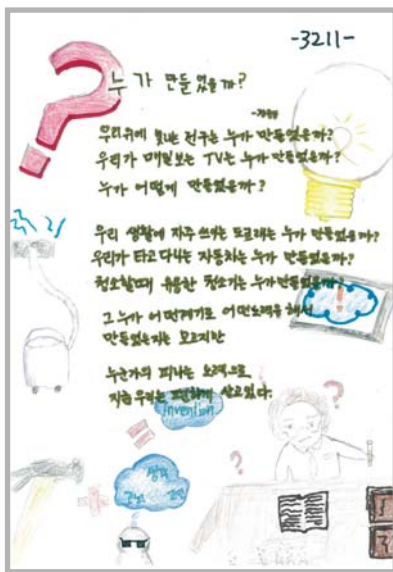
● 3학년 최정원

오늘 장애 이해교육으로 '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라는 동영상을 봤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주인 소현이라는 애는 처음에 약간 괴리감이 느껴졌다. 나와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괴리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난 솔직히 내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그 사실을 이 동영상을 보며 알게 됐다. 내가 만약 그 반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아니.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나왔다면 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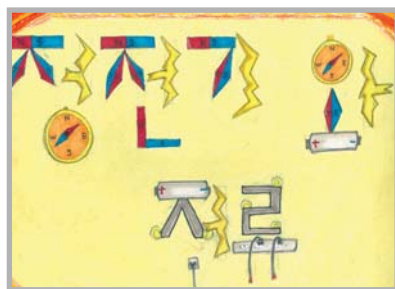
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멀리하고 나는 울면서 어머니께 전학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지금에 나라면 아마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장애를 가지신 우리 할머니를 나도 모르게 꽤나 무시했던 것 같다. 그런 점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너무 후회된다. 나도 모르게 아마 난 내가 장애가 아니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 멍청하고 자만했다. 솔직히 내 지혜는 할머니의 지혜에 비할게 못된다. 그런 할머니를 무시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이 동영상의 남주 같이 장애를 떠나 다른 사람 그 자체를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행동을 절 때 옳은 것이 아니 다고 생각한다. 이 동영상은 조금 유치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담은 아주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한다.

## ▶ 과학의달 우수작품모음



3-2 장 원 일



3-1 김 보 램



## ▶ 세월호 추념행사 만화그리기



2-1 손 자 영



1-2 김 예 림



8 변산서중학교



## 여름방학 학교 일정

☆ 신청학생은 잊지 말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 7월 21일 - 교과보충학습(전학년→8.3.)  
-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7.23.)  
- ICT소셜미디어 교육(→7.23.)
- 7월 27일 - 어울림학교 예술·체육활동(→7.31.)  
(사물놀이, 문인화, 배드민턴반 운영)
- 8월 4일 - 독서캠프(→8.5.)
- 8월 7일 - 과학캠프
- 8월 10일 - 두드림학교 운영(→8.12.)  
- 독도탐방(→8.12.)
- 8월 13일 - 학부모캠프
- 8월 18일 - 영어캠프

## 방학 중 안전지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각종 물놀이 시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
    -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에서의 수영
    - 래프팅,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 물놀이 관련 자료 활용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 물놀이 안전 매뉴얼, 동영상 자료 등
    - 스마트폰 어플 :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토어)→(검색)물놀이 GO

- 교통안전 지도
  - 교통안전교육 계획 수립 추진(아동복지법 제 31조)
  - 사이버 교통학교 활용
    -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
    - 전북 e스쿨(<http://eschool.jbedu.kr>)『교육정보』18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교통학교' 활용 안내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 체험학습(야영 수련 등)시 안전
  -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 등산, 피서지, 유원지 등에서의 공중질서 지키기 및 환경 보호

- 불법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지
  - 중학생 아르바이트 금지(유형업소, 사장행위, 유기장)
  - 18세 미만은 야간 근로행위 금지(주유소, 식당, 야간업소)

-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망 설치 :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 학교, 경찰, 학부모, 지역 연계를 통한 폭력예방 활동 전개
  - 담임교사 중심 이메일, 편지, 전화 등을 활용한 생활지도
  - 담임교사와 학생·가정 간 수시 정보교환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치료 프로그램,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활용

